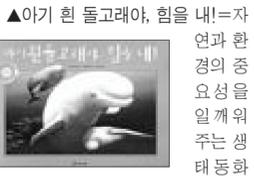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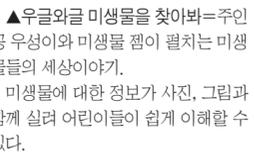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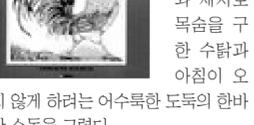
▲아기 흰 돌고래야, 힘을 내! =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생태 동화책. 온갖 위험을 극복하고 삶을 개척해 나가는 아기 흰돌고래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호리원·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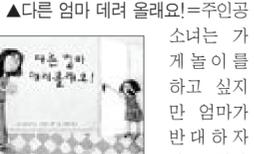
▲넌 누구니? = 이별, 어둠, 낯선 소리, 괴물, 유령 등 실제든 상상이든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저마다 두려운 존재가 자리잡고 있다. 그림자를 무서워 하는 주인공 소년이 그림자와 맞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솔출판사·8천500원)



▲우울증의 미생물을 찾아봐 = 주인공 공우성이와 미생물 짬이 펼치는 미생물들의 세상 이야기. 미생물에 대한 정보가 사진, 그림과 함께 실려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교출판·9천원)



▲아침 해를 구한 용감한 수탉 = 절제 절명의 순간 용기와 재치로 목숨을 구한 수탉과 아침이 오지 않게 하려는 어수룩한 독둑의 한바탕 소동을 그렸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맞서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준다. (시공주니어·7천500원)



▲다른 엄마 데려 올래요 = 주인공 소년은 가계 놀이를 하고 싶지만 엄마가 반대하자 다른 엄마를 데려오겠다고 소리친다. 누구나 한번쯤 꿈꾸었을 법하지만 어른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를 제치 있게 표현하고 있다. (두레아이들·8천900원)

문명의 발달은 인간을 꼭 이롭게 했을까

문명 패러독스 송상호 지음



문명은 과연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할까? 가령 광주에서 서울까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차가 발명되기 이전의 사람보다는 분명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차가 없었던 시기의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 안내를 하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한 셈이다. 막노동, 고물장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학으로 지식을 쌓은 저자 송상호의 '문명 패러독스'는 모든 문명이 간직한 다양한 '역설'의 얼굴을 보여주는 책이다.

그가 시간을 단축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일을 해야했고, 세금을 내며 자동차 정기검사까지 받아야 하는 등 지불해야 하는 가치는 더욱 늘었기 때문이다.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가 사람을 좀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소개한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과 사회의 이념과 구조를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는 거대한 대량생산 체제의 부속품으로 전락한 노동자의 삶을 풍자한 영화다. '모던타임스' 중 한장면.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이 히틀러가 제시한 길에 동의하며, 열광적인 지지를 넘어 승배를 했던 이유도 바로 문명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분석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집단이 공유하는 가치에서

찾기에 쉽게 문명에 반기를 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는 기존의 가치를 의심하고 전복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전해 왔다. 문명에 대한 비판이 더 나은 삶을 가져왔고, 이를 통해 인간은 인간적인 삶의 의미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저자는 문명의 다른 이름은 '쓰레기'라고 강조한다. 태평양은 '대륙 크기의 쓰레기 스투'라고 불릴 정도로 거대한 쓰레기 더미들이 떠다니고 있다. 에베레스트와 북극, 심지어 우주 공간에도 문명이 만들어 낸 쓰레기들이 차지하고 있다. 문명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쓰레기가 없었다. 오로지 문명의 욕망이 지구를 온통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 놓는다.

또 미래의 가치를 쫓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도 꼬집는다. 한국 사회가 고도성장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는 소중한 삶의 가치들을 성장의 대가로 지불했다. 청소년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밥집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것은 미래에만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래의 가치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미래의 성공과 연결되는 부분만 중요하고, 다른 삶의 가치는 희생하며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때 우리는 "열심히 산다"라고 말한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여유와 현재의 행복을 누리는 기술과 다양한 삶의 태도를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이같은 문명 비판을 반대할 양의 책과 영화, 소설, 그림 역사 등을 인용해 풀어냈다. 논리를 전개하기 보다는 재미 난 이야기로 풀었고,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 낸 슬픈 유적과 유물 등이 풍부한 자료 사진에 담겨 있어 독자들의 책 읽기를 돕는다. (인물과 사상사·1만3천원) /이문미기자 emlee@kwangju.co.kr

추락하는 한국경제의 진단서

... 한국경제를 말하다 지승호 지음



전문 인터뷰어 지승호씨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김수행 교수를 만나 끝없는 한국 경제의 추락을 진단했다.

'김수행, 자본론으로 한국경제를 말하다'는 신자유시대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하고, 전망과 대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와 경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한 책이다.

위기의 순간 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다시 꺼내봐야 하는지, '자본론'을 어떻게 한국경제에 적용시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모색했다. 특수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했던 MB노믹스의 끝없는 추락, 개발과 독재의 공생관계를 끊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못하는 금융 자본의 허구를 폭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 교수는 "복지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에서 대안을 찾아 미국을 넘어선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대의 창·1만4천5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난 아버지를 미워 했는데...

차마 못다한 ... 마이클 레비 지음



'차마 못다한 이야기들'은 자신의 인생을 방해하는데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아버지의 사망을 통해 아버지와 화해하는 과정을 그린 프랑스 작가 마이클 레비의 가족 소설.

결혼을 며칠 앞둔 폴리아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는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버지는 늘 자신의 일상을 방해하는 존재였다. 폴리아는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슬퍼하기 보다는 "이번에도 내 결혼식을 방해하려는 거군"이라며 짜늘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장례식 후 폴리아에게 아버지와 똑같이 생긴 밀랍인형이 배달돼 오고, 인형의 리모컨을 누르자 인형은 놀라게도 아버지로 변해버린다. 아버지로 변한 밀랍인형을 통해 폴리아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렸다.

작가 마이클 레비는 '로지텍 프랑스' 등 유명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CEO이자 아들과 가족을 위해 소설 쓰는 작가이다. (열림원·1만5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아가동 별풍' '참동무 깨동시'

어린이들에게 감성의 폭을 넓히고 상상의 키를 열어주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시를 즐겨 읽고 감상하며 실제로 써 봐야 한다는 것은 대체로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인 시집 고르기에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시의 요건 몇 가지-동심을 바탕에 두고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깨끗한 우리말로 씌어진 시, 무심코 지나쳐 버렸거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대상(사물과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발견을 담고 있는 시, 창조적 상상력을 북돋워 주면서도 현실을 떠나지 않은 시, 어린이를 주 독자로 하면서 청소년·성인들도 즐겨 읽을 수 있는 시-를 줄줄 꿰고 있다 해도, 정작 수많은 동시집 앞에 서면 또다시 막연해져서 선택 집어들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도 한다.

엄두에 두어야 할 것은 동시 선집 몇 권만 골라 읽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집의 시들을 읽는 동안 유달리 마음에 와 닿으면서도 앞서 적은 좋은 시의 요건에 합치되는 시인의 작품만 살핀 개인 시집도 찾아 읽어야 한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



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구절을 빌려, '동시는 시의 아버지'라고 한 바 있다. 이런 뜻에서, 그동안 출판된 동시 선집 가운데 특별히 권하고 싶은 책 두 권을 추천한다.

'아가동 별풍'(창재구리)와 '참동무 깨동시'(〃). 마냥 어린이들의 것으로만 알던 동시가, 어른과 청소년이 주목할 만한 일간지에 연재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쩌면 동시 성장판이 닫혀 버렸기 십상인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새로운 동시 한 편을 만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신문을 기다릴 만큼 뜨거운 반응을 보인 것이다. 아침마다 배달된, 꺾으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동시를 가슴으로 읽은 독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박수를 보냈다.

"언일 신문을 장식하는 어지러운 사건들 틈에 천진난만한 동심이 있다.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잊게 하는, 방금방금 웃는 아기 같은 동시가 있다."

"읽으면 그냥 마음이 이쁘며,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들꽃 같은 동시가 있어 더없이 반갑다. 일상에 지친 어른들을, 잊고 살았던 동심의 세계로 인도하며 하루를 상쾌하고 행복한 느낌으로 시작하게 한다."

"동시에 얽힌 배경 설명을 읽으며, 그 천진난만한 속에 묻어 있는 오묘함에 다시 한 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때 연재되었던, 우리 동시 문학 100년을 빛낸 윤동주·정지용·박목월·권정생 등 세상에 떠난 시인에서부터 박경용·신현득·이준관·손동연 등 현역 시인에 이르기까지 주옥 같은 작품 107편과 그에 따른 해설이 이 두 권의 선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한 '아가동 별풍'에 실려 있는 김용희 선생의 동시 이야기 '엄마랑 함께 즐기는 동시 놀이'는, 온 가족이 동시를 가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법과 함께 살아 있는 문학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송재진(이동문학가·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7.9 급 공무원 특강. 30주부특별반, 40주·아반 심화리 강의중. '09년 시험안내, 개강 1월 2일 (주·아반 모집). 내년 소방직(시·도별 채용인원). 1월 2일 (주·아반 모집) (현재예약접수중). 광주 동부서우 (중앙초교 후문앞) 222-4560

새롭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공인중개사 시험은 역시 새롭!! 19회 시험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 위원급 교수진과 45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월 2일(주,아) 주부반, 성인반 국비지원 재직자반 국비지원. 서울 강남, 노량진 출강!!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 광주지역 최다 합격자 배출!! 본원출신 전국수석 (송은영님 평균 96.7점) 최강의 교수진! 저자적강! 신관식 교수 서울 강남, 노량진 출강!! 이건호 교수 서울 중로, 분당 출강!! 이윤중 교수 서울 노량진, 분당 출강!! 장경중 교수 현, 세우사 9년 세법 강의!! 2009년 9월 시험 예상 첫진도 개강 1월 2일 광주고시학원